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14 그렉 브레이든,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



▶ 한줄 요약
우리 안에는 변화의 원동력이 모두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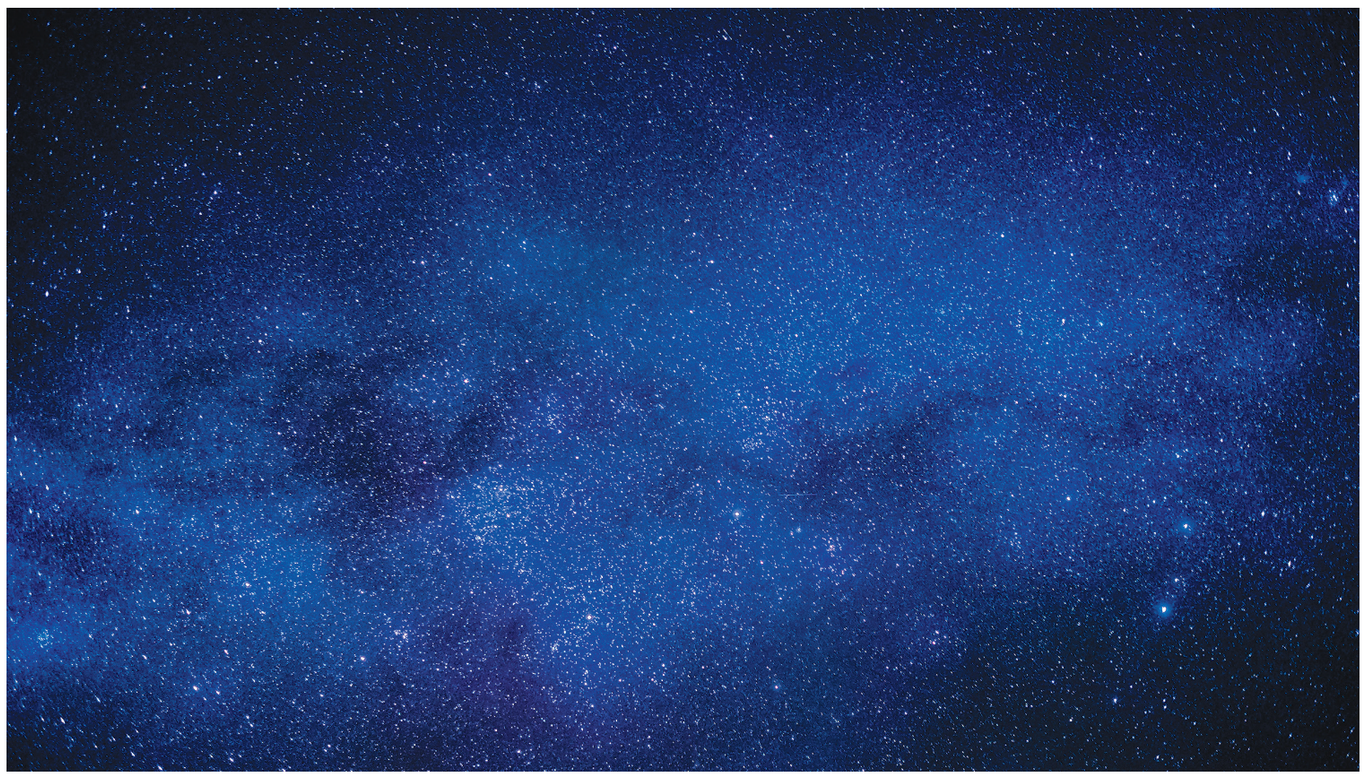
양자학과 고대지혜 만남, '디바인 매트릭스'



그렉 브레이든(Gregg Braden)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다섯 차례나 이름을 올린 작가이자 세계적인 명강사. 현대 과학과 인간의 잠재력 및 영성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해 왔다. '세계에서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실존 인물 100인'(영국 왓킨스 저널 선정)에 7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인간의 비전을 확장하는 개인에게 수여되는 템플턴상 후보에 올랐다.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 당시에는 컴퓨터 지질학자로, 이후에는 시스코 시스템즈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서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로 일했다.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지혜를 찾기 위해 22년 이상 동안 외딴 수도원과 산악 마을은 물론 고대의 잊혀진 문헌들을 탐사해 왔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Secrets of the Lost Mode of Prayer〉, 〈신의 코드 The God Code〉, 〈이사야 이펙트 The Isaiah Effect〉, 〈지혜 코드 The Wisdom Codes〉, 〈프랙탈 타임 Fractal Time〉 등은 그 열매로서,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생각의 박스 안에 갇힌 존재들

인류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들을 박스 안에 가두어 왔다. 자신들을 스스로 박스 안에 가두고 어둡다고 징징거려 왔다. 박스 안이 얼마나 어두운지, 스스로 갇혀 사는 어둠이란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운지, 필요충분할 만큼 경험해 왔다. 그 안에는 자유도 없고 풍요도 없다는 것을 실컷 체험학습해 왔으니, 이제는 그만 졸업할 때가 되었다. 스스로 박스를 풀어헤쳐 벗어날 때가 되었다. 물론 갇힌 자의 의식이 성장한 그만큼 박스의 크기가 커져서 운신의 폭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커져도 박스는 박스일 뿐이다. 감옥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유와 풍요의 크기 또한 커지지만, 죄수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감옥의 크기가 커질수록 스스로 감옥에 갇힌 죄수임을 망각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감옥 안에 갇혀 살면서도 할 일이 그리 많은 것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함이다. 성취를 하면 할수록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풍요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얼마전에는 더 많은 것을 더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법칙이라는 것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상위 2%의 죄수들만이 알고 있고 삶 속에 적용하고 있다는 '비밀의 법칙'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존재의 주소 다시 쓰기

꿈과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너무나 간단하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바뀐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에 젖어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를 현실 속에 적용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왜 그럴까? 끌어당기는 힘이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지 못할까?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믿음이 약할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토대와 작동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소원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상상으로도 얼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또 감사할 수 있겠는가? 표면의식에서는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잠재의식에서는 가당치 않다고 속삭일 때,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은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누가 이길까? 당연히 잠재의식의 승리다. 꿈과 소망은 멀찌감치 달아나 버리고, 비루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닥치고 만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도하기 이전에 기초부터 점검하고 바닥부터 탄탄히 다져야 한다. 무엇이 기초이고 토대일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의 숨겨진 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지난 세기 동안 현대 과학은 인간 존재의 실상에 대하여 엄청난 비밀들을 발견해 왔고, 그 비밀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속삭인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그 어떠한 박스에도 담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다.

꿈을 현실화 위한 대기상태
'우주 에너지 그물망'의 일종
접속위한 '느낌'의 언어필요

그렉 브레이든은 인지과학, 뇌과학, 생명과학, 양자과학의 주요한 실험 결과들과 발견물들이 가리켜 보이는 '우리 몸과 마음과 우주의 구성 물질의 본질'에 대하여 성찰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시 쓰여져야 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몸 안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심지어 죽음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즉 우리는 모든 것이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초공간적nonlocal'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져다놓은 내 몸의 세포 하나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고스란히 반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 과학은 우리가 아무리 비루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한들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존재들'임을 증명해 낸다.

우리가 고전적인 물리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이자 그릇의 역할을 하는 초공간적이고 홀로그램적인 '디바인 매트릭스'가 우주 어디에나 없는 곳 없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 구실을 함으로써 우리의 꿈과 소망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도 바로 이 매트릭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 지혜 전통과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에 의해 밝혀진 우리들 존재와 우주의 본질은 그러나 20세기의 결실만은 결코 아니다. 우주 만물을 남김없이 담고 있는 '순수 의식'의 통일장(곧 '디바인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는 베다에도 등장하고, 불교('제석천의 그물망')에도 나온다. 불교와 도교, 힌두교, 수피즘, 고대의 인디언 전통, 20세기에 발견된 도마복음 등도 양자 물리학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을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양자 물리학과 고대의 지혜 전통이 손잡고 가리켜 보이는 존재의 진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아직도 체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지니지 못한 것일까? 어느 시인이 "우리는 얼마나 기이한 존재들인가! 어둠의 밑바닥 지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불멸성은 떠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네"(루미, 재인용)라고 통탄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그렇게 통탄해야 한다. 하여 우리의 믿음 코드를, 우리의 현실 코드를 다시 쓰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눈부신 불멸성을 이 땅에 육화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제한시키고 왜곡시켰던 근대 과학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했던 믿음의 체계를 거부해야 마땅하고, 새로운 언어로 다시 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바꿔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렉 브레이든이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변화든 그 변화를 창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힘까지도!

'느낌', 디바인 매트릭스 소통언어

'우리는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살면서 신비로운 양자 캔버스를 통해 내면 깊은 곳의 열정, 두려움, 꿈, 열망을 표현하는 예술가들이다.' 우리는 '캔버스 자체이자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그림이며 물감인 동시에 붓'이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디바인 매트릭스와 통하는 언어를 알아야 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언어는 바로 "느낌"이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미 실현되어 있음을 "느낌"으로 느끼는 것은, 꿈과 소망의 현실화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도 같다.

"20세기 말의 과학 실험이 입증한 대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것들에 영향을 준다. 외부 세계의 원자, 전자, 광양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 언어이며, 이는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느낌이다. 우주의 양자 힘(quantum force)과 소통하는 것은 감정의 언어이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인식하는 언어는 바로 우리의 느낌인 것이다."

과학이 지원하지 않는 믿음은 힘이 없다. 믿음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신비는 언제까지나 현실 너머에서만 어른댈 뿐일 것이다. 과학은 믿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삼투되어야 한다. 과학은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어야 하고, 믿음은 과학의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힘을 키워 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이제 (믿음의) 신비는 과학에 의해 소환되었고, 과학과 믿음은 삼투작용을 통하여 힘이 배가되어 '나와 너의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바탕살림을 갖추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와 그의 전작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또 거기에 갇혀 왔던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자유의 열쇠'를 제공해 준다. 그것은 곧 양자 물리학과 (불교를 비롯한) 고대의 지혜 전통이 손을 잡고 21세기의 인류를 위해 가리켜 보이는 미래의 영토이자 '지금 여기에서의 천국'을 여는 길이기도 하다.

〈작가〉

BTN불국토상조와 함께하는 백중(7/5~8/22)맞이 특별한 혜택

마지막 가는 길 부처님의 품 안으로!
극락왕생을 위한 불교식 장례

백중기간 가입 최대 7~11회 특별할인!

불국토330	불국토450
월 20,000원 165회 (11회 할인)	월 30,000원 150회 (10회 할인)
월 33,000원 100회 (7회 할인)	월 45,000원 100회 (7회 할인)

지금 빨리 상담 신청하세요!

가입상담 02-3270-3377

상품명			불국토 330	불국토 450
시다림			스님의 여법한 집전 (입관에서 성복례까지)	
장례인력	장례지도사		1명 3일간 파견	
	입관보조		1명	
	도우미		2명(8시간/1인당)	5명(8시간/1인당)
장례용품	상복	현대식	남자 2벌(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남자 5벌(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여자 3벌(개량한복)	여자 5벌(개량한복)
		전통식	각 5벌	필요량 제공
	관		화장시:18mm(오동관)	화장시:18mm(오동관)
			매장시:30mm(오동관)	매장시:45mm(오동관)
	횡대		-	제공
	수의		불경수의 (저마100%, 기계직, 원단:중국, 제조:한국)	불경수의 (대마100%, 기계직, 원단:중국, 제조:한국)
	입관		초혼, 수시, 입관(연화대렴)	
	고인용품		도포, 원삼, 습신, 천금, 지금, 명정, 보공, 관보, 소창 등	
	빈소용품		향, 반야심경초, 위패, 방명록	
장의차량			장의리무진, 유족버스	장의리무진, 유족버스
			왕복 100km 제공	왕복 200km 제공
			(초과 시 2,000원/km)	(초과 시 2,000원/km)
앰뷸런스			관내 제공	
제단 꽃장식			-	25만원 지원
헌화			헌화 30송이	
유골함			일반 유골함	고급 유골함
특별 서비스			생화꽃관장식, 지장보상살 크리스탈 위패 제공	
환급 항목			수의, 차량, 도우미, 시다림 미사용시	

BTN불국토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이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의무액 15,455,450,000원, 상조 관련 자산 19,991,320,000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 : 서울-2011-제68호